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11월 1주~11월 2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 [인프라-철도] 중국과 고속철 부채 상환기간 연장 합의¹⁾(Nikkei Asia, 10/24)

-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Luhut Binsar Pandjaitan은 고속철(Whoosh) 사업 부채 상환기간을 기존 35~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상환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
- Danantara COO Dony Oskaria는 부채의 조건, 금리 및 통화 확정을 위해 중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힘. 고속철은 ‘23년 10월 상업운행 개시후 상당한 손실을 기록하며 부채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부채 리스케줄링을 추진해 왔음
- 중국은 일대일로(BRI)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고속철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처음에는 40년 만기·2% 금리 45억불 대출을 제공. 이후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 35년 만기·3% 금리로 대출을 추가함

○ [플랜트] Danantara, 180억불 규모 18개 다운스트림 프로젝트에 자금지원 예정²⁾(Bisnis, 10/28)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 Bahlil Lahadalia에 따르면 Danantara가 총 180억불(300tril IDR), 18개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자금지원 예정이며, 이중 75%가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사업임
- 모든 프로젝트는 Pre-FS와 FS 후 추진준비가 완료되었으며, Danantara 지원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들의 부족한 편당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플랜트] ¹⁾Inpex, Abadi Masela 프로젝트 CCS 기술 완료 및 FEED 진입 기반 마련³⁾(Bisnis, 10/23)

- ¹⁾INPEX Masela Ltd는 인니 석유가스조정기관(SKK Migas) 및 반둥공대(ITB) 산업연구소와 공동으로 Abadi 가스전 프로젝트에 적용될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연구를 완료했다고 밝힘
- SKK Migas 생산담당 부국장 Taufan Marhaendrajana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인니최초 CCS를 통합 적용하는 LNG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기본설계(FEED) 단계로 진입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임
- Abadi Masela는 국가전략프로젝트로 ‘30년 생산 개시, 연간 950만 톤 LNG 생산을 계획중이며, 이는 일본 연간 LNG 수입량의 10% 이상

○ [인프라-도로] Trans Papua 도로 건설 신속 추진 논의⁴⁾(Bisnis, 10/23)

-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장관 Agus Harimurti Yudhoyono(AHY)는 Papua 지역 인프라개발 및 Trans Papua 도로 건설 가속화 의지 표명. 파푸아 개발가속화위원회 위원장 Felix Waggai도 중앙정부와 파푸아 정부간의 정책조정 및 연계강화 추진중임을 밝힘
- ▲전략지역 및 新경제권 개발, ▲육상 교통망 주축인 Trans Papua 도로 건설 ▲물류 및 지역간 이동편의를 위한 항공·해상 연결망 통합 ▲Trans Papua 회랑을 따라 조성될 이주 정착지 개발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및 추진 예정
- 시행사 HMTPT(PT Hutama Mambelim Trans Papua) 이사 Kun Hartawan Adi Satria에 따르면 ‘25.8월 토건개시, ‘24.12월 자금 조달계약 체결, ‘24.7월 정부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총 사업비는 약 198백만불(3.3tril IDR) 수준

○ [인프라] 29억불 규모 15개 댐 ‘29년 이전 완공 목표⁵⁾(Bisnis, 10/23)

- 공공사업부(PU) 장관 Dody Hanggodo는 약 28.5억불(47.48tril IDR)

1) <https://asia.nikkei.com/business/transportation/indonesia-says-deal-reached-with-china-on-railway-debt-extension>

2) <https://istritkIndonesia.com/detail/18305/danantara-kucurkan-investasi-rp300-t-fokus-garap-proyek-energi>

3)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026/44/192444/studi-carbon-capture-ccs-rampung-pengembangan-blok-masela-masiki-tahap-feed#goog_rewarded

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023/45/192807/renko-ahy-bertemu-gubernur-papua-bahas-percepatan-proyek-infrastruktur>

5)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023/45/192800/ti-bakal-punya-15-bendungan-baru-senilai-rp4748-triliun-ini-chiftanya#goog_rewarded

규모 총 15개 댐이 ‘29년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댐 건설은 연결도로 및 관개망 개발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 이번 댐 건설은 농업생산성 제고와 식량 자급자족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가능한 관개 노력의 일환이며, 국가비전 Asta Cita의 식량·에너지 주권 확립 목표와 직접 연계됨. 완공시 관개면적은 기존 1.8만ha에서 26.3만ha로 확대되며, 경작지 면적 증가 및 연간 농작물 생산량도 140만 톤에서 234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
- 건설 중인 주요 댐: ▲South Sumatra의 Tiga Dihaji 댐, ▲West Java의 Cibeet 및 Cijurey 댐 ▲Central Java의 Bener, Karangnongko, Jragung, Cabean 댐, ▲East Java의 Bagong 댐, ▲NTT 지역의 Manikin 및 Mbay 댐, ▲South Sulawesi의 Jenelata 댐, ▲Maluku의 Way Apu 댐, ▲West Sulawesi의 Budong-Budong 댐, ▲South Kalimantan의 Riam Kiwa 댐, ▲Gorontalo의 Bulango Ulu 댐 등

○ [플랜트-산업] DME 프로젝트, 한국-유럽 컨소시엄 기술 투자 FS 진행중⁶⁾(Bisnis, 10/28)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 Bahlil Lahadalia는 한국-유럽의 합작 컨소시엄이 인니에서 디메틸에테르(DME)⁷⁾ 생산을 위한 석탄 가스화 기술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 Bahlil 장관은 인니가 현재 주로 3kg LPG를 연료로 사용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석탄 다운스트림 공정을 통한 DME 생산으로 LPG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
- 또한 한국-유럽 기술과 중국 기술 두 가지를 대상으로 FS 진행 중이며, 최종결정은 내려지지 않음. 두 기술 모두 ‘26년에 착공될 인니의 첫 DME 프로젝트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며, 프로젝트 착수에 중대한 장애 요인은 없고 저열량탄을 활용할 예정

2. 주요 기업·기관 동향

○ [현지기업] Pertamina NRE, 3Q 전력생산 목표 19.2% 초과·누적 설비용량 증가세⁸⁾(Bisnis, 10/31)

- Pertamina New & Renewable Energy(NRE) Corporate Secretary Rizki Vistiari는 ‘25.3Q 연결기준 전력생산량이 목표치를 19.2% 초과한 652만MWh에 달했다고 밝힘. 본 성과가 주요 계열사인 PT Jawa Satu Power의 374만MWh(목표 대비 +5%) 생산을 비롯, 어려운 여건에서 전사적 노력이 맺은 결과라 설명
- Pertamina NRE의 누적 설비용량은 3,083MW이며, 전년동기 대비 뚜렷한 증가세. 또한 Citicore Renewable Energy Corporation(CREC)와 협력한 프로젝트가 주요하게 기여했으며, 지난 9월 197MW 태양광 + 320MWh BESS 상업운전 성공적 돌입

○ [월개발사] Mitsubishi Estate, 인니 첫 콘도 분양 개시⁹⁾(Nikkei Asia, 10/22)

- Mitsubishi Estate Indonesia는 인니에서 첫 콘도미니엄 분양을 개시했다고 발표. 이번 프로젝트는 인니내 최고가 주택 중 하나로, 175m² 규모 2베드룸 콘도가 약 78.3만불부터 시작하며 최대 1,000m²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고 설명
- 사업은 자카르타 중심부 Two Sudirman Project로 약 330m, 270m의 2개 고층으로 구성되며, 콘도는 270m 건물에 위치, 입주는 ‘29년 1Q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 국영은행 Bank Mandiri와 MUFG Bank 자회사 Bank Danamon과 파트너십도 체결, 수분양자들 대출을 지원할 예정

○ [우리기업] 롯데케미컬, Danantara에 Cilegon 석유화학 프로젝트 35% 지분 참여 제안¹⁰⁾(Bisnis, 11/1)

6)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028/44/1924079/konsorsium-korea-eropa-mau-investasi-teknologi-di-proyek-dme-indonesia>

7) LPG나 디젤의 대체연료로 무색의 기체. 가스공사 및 가스기술공사에서 관련기술 보유

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031/44/1924992/produksi-listrik-pertamina-nre-tembus-652-juta-mwh-per-kuartal-iii-2025-lampaui-target-192>

9) <https://asianikkei.com/business/markets/property/mitsubishi-estate-launches-sales-of-800-000-condos-in-jakarta>

10) <https://nasional.kontan.co.id/news/lotte-chemical-gandeng-danantara-tawarkan-35-saham-proyek-petrokimia-di-cilegon>

- Danantara CEO Rosan Roeslani는 Lotte Chemical이 Cilegon 석화 프로젝트의 35% 지분을 제안했다고 밝힘. Danantara는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국영기업을 통한 간접참여가 아닌 직접투자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 롯데케미칼은 40억불 규모 사업에 17억불을 이미 자기자본으로 투입. LINE(Lotte Chemical Indonesia New Ethylene)이라 불리는 본 프로젝트는 동남아시아 최대규모 중 하나이며 인니의 화학 원자재 산업을 강화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전망

○ [해외기업] Eni-Petronas, 인니·말레이시아 석유·가스 자산관리 합작회사 NewCo 설립 계약 체결¹¹⁾(Nikkei Asia, 11/3)

- 이탈리아 Eni와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Petronas는 인니와 말레이시아의 업스트림 석유·가스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합작회사 NewCo 설립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NewCo는 14개의 인니 자산과 5개의 말레이시아 자산을 관리하며, 향후 5년간 150억불 이상을 투자, 30억 배럴의 확인된 자산과 추가로 100억 배럴 탐사할 계획. 생산량은 초기에 일산 30만 배럴, 중기적으로 50만 배럴 이상으로 확대 예정
- 이번 합작은 아부다비에서 열린 ADIPEC에서 체결되었으며, Eni 특유의 여러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독립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방식의 일환으로 파악됨. 과거 Eni는 앙골라에서 BP와 협력, Azule Energy 합작회사를 설립, 성장시킨 바 있음

3. 정부 정책동향

○ 국가전략사업 통해 8% 경제성장 달성 추진¹²⁾(Bisnis, 10/24)

-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장관 Rachmat Pambudy는 국가전략사업이

프라보워 행정부의 경제성장을 8% 달성 목표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

- Bappenas 거시경제기획·개발모델링국 국장 Ibnu Yahya는 국가전략사업이 향후 5년간 최대 2.2%의 추가 성장을 기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올해 중반 기준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유지와 일치한다고 설명. 또한 ‘25년 9월 기준 물가상승률 2.65%, 재정적자 GDP의 3% 이하, ‘25년 6월 기준 부채비율 39.9%로 관리중이라고 덧붙임
- Ibnu 국장은 그러나 이는 충분하지 않으며, Indonesia Emas 2045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국가재정 적자 등 주요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중앙, 지방정부, 국영기업, 민간 협력 등 다양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

○ ‘32년 첫 원전 가동·‘60년 44GW 달성 목표¹³⁾(Bisnis, 10/27)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차관 Yuliot Tanjung는 원전을 최후의 수단인 아닌, 장기 에너지 전환의 핵심 요소이자 국가 에너지 안보의 기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원전 추진에는 ‘67년 제정된 핵에너지법, ‘25- ‘45년 국가장기개발계획, ‘25년 제정된 국가에너지정책 등 강력한 법적기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임
- ‘32년 첫 원전 가동, ‘60년까지 전력용 35GW·수소생산용 9GW를 포함한 총 44GW까지 발전용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원전 비중은 ‘30년 5%, ‘60년 11%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
- 기당 건설비용은 약 38억불, 건설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며 재난위험에 대한 국민 우려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강조

4. 녹색산업 동향

○ [해외기업] ¹³⁾Gurin Energy, Riau 제도 태양광발전소 전력수출 ‘35년까지 3.4GW 목표¹⁴⁾(Bisnis, 10/29)

11) <https://asia.nikkei.com/business/energy/eni-petronas-merge-indonesia-malaysia-assets-in-joint-venture>

1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024/45/1923048/prabowo-gasol-236-psn-demi-kejar-target-pertumbuhan-ekonomi-8>

13) <https://enantaranews.com/news/388249/nuclear-power-becomes-indonesias-strategic-energy-option-govt>

14) <https://hijau.bisnis.com/read/20251029/652/1924326/gurin-energy-bicara-manfaat-investasi-proyek-ekspor-listrik-bagi-indonesia>

- 싱가포르 태양광발전소 개발사 Gurin Energy CFO Michael Boardman는 싱가포르로 전력수출이 진행되는 Riau 제도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에 수조 IDR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 제품·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해 태양광 패널 부품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해당 프로젝트는 ‘35년까지 3.4GW 전력수출을 목표로 함
- Boardman CFO는 현재 진행중인 전력수출 프로젝트 5건의 총투자가 약 500억불(800tril IDR)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인니 정부가 싱가포르로 전력수출을 통해 약 150억불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또한 Boardman CEO는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관련 투자도 이어질 것이고, 기업들이 인니내에 배터리 팩 조립 공장을 설립 했으며, 이 배터리 팩이 발전소에 구매 및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 모든 프로젝트의 투자 및 건설 단계는 4~5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 며, ‘30년 완공을 목표로 함
- [WTE] Danantara, 각 WTE 프로젝트에서 최소 30%의 지분 보유 계획¹⁵⁾(Antara, 11/3)
- 국부펀드 Danantara CIO Pandu Sjahrir는 WTE 프로젝트의 전략적 투자자로서 최소 30% 지분 보유할 계획을 밝힘. 지분율은 파트너 와의 협상 결과와 각 프로젝트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 이나 E:D 비율은 3:7 가량 예상
- Pandu CIO는 국내외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WTE 프로젝트의 상업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며, USD 기준 높은 한 자릿수의 IRR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 그룹계열사) – 한투그룹 조성·운용 펀드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 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LG CNS MEP(장비설치) 계약, 현지업체(Acset)와 시공계약 체결완료, 본사 투자의결(‘25.9.4) 및 이사회회의결(‘25.9.15) 완료
- (25년 센터목표) 본사 투자의결 (달성)

○ (주요동향) 선행조건 달성 추진 및 KIND 투자금 납입 준비

② BSD 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46.6ha에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및 아파트)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Termsheet 체결(‘25.10월말) - KIND FS 지원대상 선정, 최종FS 진행중
- (25년 센터목표) DD 및 최종 FS 수행, ‘26.1Q 투자심의 부의 준비

○ (주요동향) KIND 자금지원FS 협약체결 完, 용역 착수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현지 디벨로퍼/토지주
- (참여기업) GS건설 및 중국계 기업 참여 검토중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수방 지역내 산업단지를 단계별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전반적 협력 MOU 체결, ‘25.5~7월 NDA 체결 및 수방산단 사업 Pre-FS 수행 / GS건설 내부 사전사업심의 통과(‘25.10.1)
- (25년 센터목표) Deal Pipeline 등재 / 사전검토위 또는 사업선정위 통과, 개발참여

15) <https://jatimantaranews.com/berita/597257/danantara-berencana-kusai-minimal-30-persen-saham-di-tiap-proyek-wte>

○ (주요동향) GS건설 DD 발주 및 과업별 용역 착수

④ 자카르타 MRT 4호선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자카르타 주정부(DKI Jakarta)
- (참 여 사) KIND, 국가철도공단, 삼성물산 + 플레너리 아시아(MOU 체결후 협의중)
- (사 업 비) 15억불 ('22년 Pre-F/S 기준)
- (사업내용) 자카르타 MRT 4호선 건설, 유지보수 ⇒ AP로 회수 (운영 분리예정)
- (추진현황) K-컨소 LOI 제출('23.2), LTP(AP 제외) 수령('24.1.26), 수정 LTP(AP 포함) 수령('25.2.19) - 기한연장 요청('25.7.8) - 플레너리 참여의향 표명
- (25년 센터목표) LTP 기한연장 획득 (完) / 플레너리 참여확정 (完) 및 FS업데이트

○ (주요동향) 플레너리 본격적 FS 협의 시작 / 로컬컨설턴트 모색중

⑤ 신수도 공무원주택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 (참여기업) 삼성물산, 브란타스(신수도 공무원주택 도급공사 실적보유 건설공기업)
- (사 업 비) 약 4억불
- (사업내용) 신수도내 공무원주택(아파트 21개동) 건설, AP로 회수
- (추진현황) '24.10 삼성물산-브란타스 MOU 체결, '24.11 LOI 제출, '25.5.22 LTP 수령, '25.9 삼성물산 기용 컨설턴트 FS 부분 수행중
- (25년 센터목표) LTP 기한연장 (달성. 단 '26.1월까지로, 추가연장 요청예정)

○ (주요동향) FS제출용 설계 전적 비교중 / 중국사업주 참여 협의

□ 기타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① 기타 프로젝트 동향

① Nusantara 신도시 (신수도, 또는 정치수도) 건설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Otorita Ibu Kota Nusantara)
- (참여기업) 현지 국영건설사 재정사업 참여중 / PPP사업 외국기업 참여 추진중
- (사 업 비) 466조 Rp (원화 약 40조원)
- (사업내용) 자카르타의 고질적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추구 목적으로 동칼리만탄에 신수도를 건설 / 프라보워정권 출범후 정치수도로 재명명
- (추진현황) 재정으로 대통령궁 및 집무실, 공무원주택 및 오피스, 도로, 사법단지 등 완공 및 건설중 - PPP로 지하공동구(MUT), 공무원주택, 관제센터 등 추진중
- (25년 센터목표) 공무원주택 FS 협조 / 관제센터 등 추가사업기회 구체화

○ (주요동향) 신수도 건립은 부정적 여론·평가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장기·대형사업으로, 사업기회 지속 모색 필요

-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신수도 예산 감소 및 거주인원 부족으로 지역경제 위축¹⁶⁾(The Guardian, 10/29)

- 영국의 유력지인 가디언에서 이례적인 상세보도. 신수도 예산은 '24년 26억불에서 '25년 9억불로 감소, 차년도는 4억불 배정 예정. 현재 신수도에 2,000명의 공무원과 8,000명의 노동자만 거주하여 '30년 목표인 120만명은 아직 요원. 또한 건설 지연으로 숙박업, 건설노동자, 향만업 등 신수도 인근 지역경제가 위축됨
- 동칼리만탄 물라와르만대 헌법학자 Herdiansyah Hamzah는 신수도에 대해 부정적이며 지난 5월 명명된 정치수도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 전문가들은 현재 대통령의 관심이 신수도 개발보다 '26년까지 연 약 197억불 투입 예정인 무상급식에 예산이 편중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

1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oct/29/indonesia-new-capital-city-nusantara>

- 공무원 4,100명, ‘25.11월부터 신수도 근무 예정¹⁷⁾(Beritasatu, 10/30)

- 신수도청(OIKN) Basuki Hadimuljono는 ‘25년 대통령령 제79호를 통해 공식적으로 정치수도로 지정된 바, 16개 부처 4,100명 공무원이 11월부터 신수도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힘
- Basuki 청장은 수천 명의 공무원이 사용할 주택과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상수도와 전력 공급, 사무용 가구·설비 등 최적의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

- Karangjoang-KKT Kariangau 신수도 진입 고속도로, 올해 완공 목표¹⁸⁾(Bisnis, 11/1)

- 공공사업부(PU) 장관 Dody Hanggodo는 신수도 진입 고속도로 3A 구간인 Karangjoang-KKT Kariangau가 올해 완공예정이라 밝힘. 총연장 13.4km로, Balikpapan과 중앙정부핵심지역(KIPP) 연결
-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 30분에서 약 4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 또한 해당 구간은 기존 Balikpapan-Samarinda 고속도로의 8km 지점인 Kariangau 구간과 직접 연결되며, 올해 신수도 VVIP 공항 진입도로 건설 또한 마무리될 예정

- 114백만불 규모 신수도내 사법단지 도로 사업 ‘27년 완공 목표¹⁹⁾(Bisnis, 11/3)

- 신수도내 사법지구 도로가 10.31일 착공. 국영 건설사 PT PP가 수행하며 사업 규모는 약 114백만불(1.9tril IDR)에 달함
- PT PP Corporate Secretary Joko Raharjo는 이번 사업이 공동운영(Joint Operation) 방식으로 추진되며, PT PP의 참여 비율은 25%라고 설명. 공기 총 793일로, ‘27.1월 준공 계획
- 신수도 사법단지내 Section 36, Section 16&2, Section 17, Botanical Section, West Garden Section 등 주요 구간과 교량

건설 포함. 신수도 사법·법률 기관을 연결하는 핵심 축이자,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 신수도 사법단지 ‘25년 11월 착공 예정²⁰⁾(Bisnis, 11/3)

- 신수도청(OIKN) 청장 Basuki Hadimuljono는 신수도내 사법단지 건설사업 규모가 약 186백만불(3.1tril IDR)에 이를 것이며, 현재 해당 사업은 입찰 단계에 있다고 밝힘
- 사법단지 부지는 약 15ha에 헌법재판소, 사법위원회, 대법원 청사 등을 포함하며, 2단계 개발은 입법단지도 포함. 공사계약은 ‘25.11월내 체결되어 약 25개월로 소요 예상
- 한편 전체 신수도 인프라 개발 예산은 세 가지 재원으로 구성됨. 국가예산 약 29억불(48.8tril IDR), PPP 약 95억불(158.72tril IDR), 민간투자 약 39억불(66.3tril IDR)임

② 포노고로 스마트가로등 PPP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포노로고시(Ponorogo Regency)
- (참여기업) 도화엔지니어링, 예코란트
- (사 업 비) 328억원
- (사업내용) 2,623개 스마트 가로등 설치, 기반공사 및 운영
- (추진현황) 인근지역 KCN 실증 완료, 호평 - 포노로고 대상 KIND FS지원, 준공(‘24.3) - 물량확대로 도화 자체적 FS보완 - KIND에 제안서작성지원 신청검토
- (25년 센터목표) 제안서작성지원 또는 사업개발비 투입 본사 건의

○ (주요동향) 사업주(도화) 본사 출장, 현지방문 및 센터 면담

- ‘23년 PPP북에 등재된 것은 긍정적이나, LTP 발급이나 기한부여, AP에 대한 지급의향 서면명시 등 절차가 추가로 필요
- 그러한 문서/절차적 이슈를 다시한번 챙겨줄 것을 당부 ⇒ 문서 및 절차적 문제가 없을 때 KIND도 비용투입 가능함을 설명

17) https://www.beritasatu.com/nusantara/293620/4100-asn-dari-16-kementerian-mulai-berkantor-di-ikn-per-november-2025/#gpg_rewarded

1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101/45/1925162/konstruksi-tol-akses-ikn-karangjoang-kkt-kariangau-ditarget-rampung-tahun-ini>

19)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103/45/1925622/ptpp-bidik-proyek-jalan-kompleks-yudikatif-di-ikn-mpl9-triliun-rampung-2027/#gpg_rewarded

20)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103/45/1925552/pembangunan-kawasan-yudikatif-di-ikn-butuh-anggaran-m31-triliun>

③ 바탐 항나뎃 공항 확장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바탐 경제자유구역청(BIFZA)
 - (참여기업) 인천공항공사 컨소시엄
 - (사 업 비) 5,948억원
 - (사업내용) 기존 T1 리뉴얼, T2 신설, 공항운영 및 지원시설 재배치
 - (추진현황) 바탐공항 운영권 인수 및 운영 개시('22.7~'47.6)
- (주요동향) 상업시설(14개 사업권, 32개 매장) 운영사업자 선정입찰 완료('24.1). T1 리노베이션 공사 완료 및 운영개시('24.4)
- T2 신설 재원조달 상황 점검하여 KIND 참여가능성 타진 예정

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11월 1~2주)
- 네트워킹 5건 :현대차그룹 스마트시티추진실, 前자바베카,現 인티랜드, 롯데건설, 자바베카, 코참
 - 사업개발 11건 : GS건설, 도화, 대우건설·시나르마스랜드, EIPP 5년차 최종보고, EIPP 최종보고회 발표, 신수도 산업단지 설명회, 퀀텀벤처스, Sembcorp, 플레너리·삼성물산·철도공단
 - 대관업무 4건 ; CGIF-인니 재무부 공동세미나, 기재부-Bappenas 고위급협의, KIND·기재부 경제협력기획과 협의, 주아세안대표부 한-아세안 리셉션